교통 약자 위한 '행복한 버스' 달린다

4월 10일, 부산성의신협 교통약자 저층버스 발차식

2억 5000만원 특수버스, 통 큰 기부
발차식 및 시승식, 지역민에게 전달
지역민 위해 환원하는 부산성의신협
각종 봉사로 불교 기관 후원도 이어



4월 10일 진행된 발차식에서 장애인 불자를 비롯한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휠체어를 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손발이 되어줄 행복한 버스가 탄생했다. 부산성의신협이 2억5000만원 기금을 출자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층버스를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에 기부했다. 부산성의신협은 불교신협인 부산성의신협 범천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다.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익현)은 4월 10일 부산 송상현광장 내 다이내믹 부산마당에서 교통약자 전용 저상버스 발차식 및 시승식을 개최했다.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은 부산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버스'를 운행해왔다. 최근 해피버스 1호차의 노후로 신규버스가 필요해 지역에 후원을 요청했고, 부산성의신협이 2억5000만원 전액을 기부해 저상 버스를 전달했다.

발차식은 1부 기념식으로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 경과보고 및 인사말씀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제막 및 기념촬영, 시승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윤석영 부산성의신협 이사장을 비롯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내빈과 지역 시민 및 어르신 400여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윤석영 부산성의신협 이사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발대식을 개최해 기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신뢰받는 신협으로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겠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김익현 부산진구노인 · 장애인복지관장은 "후원 기업의 뜻을 잘 받들어 지역 사회 속에 교통약자를 위한 활동을 유지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부산성의신협이 기증한 해피버스는 장애인 승차시 경사로가 자동 설치돼 휠체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 차량이다. 출입문 발판 높이가 27cm 이내여서 휠체어뿐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도 편하게 승차 가능하다. 휠체어는 총 4대 탑재 가능하다. 해피버스는 발차식 이후 평일에는 부산진구 복지관, 관공서, 병원, 시장 등을 돌며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을 돕고 주말에는 부산 소재 복지단체들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부산성의신협은 매년 신협중앙회 사회공헌재단에 1000만원 기부, 지역초등학교 학교발전지원금 지원, 중 ·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금이 매년 1억원 가량 사용한다. 아울러 '작은 정성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캠페인을 시작해 매달 급여 일부를 '이웃사랑 기금'으로 조성하고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산성의신협은 연지점 등 부산진구에 4개 영업점을 두고 있고 동래구1개 지점 등 5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자산액은 5252억 원으로 전국 9위이고 당기순이익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부산성의신협 불교지점(범천지점)은 1990년 12월 13일에 창립됐다. 2008년 12월 15일 부산성의신협이 합병해 운영 중이며 2017년 말 기준 자산은 945억 상당이다. 불교지점은 사찰 대출 전문지점이며 불자 우대, 지점장은 불자만 선임한다. 또, 불자를 위한 환원 사업을 펼치며 매년 팔관회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연등행사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포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포교 미디어앱 리뉴얼 돌입

포교원 '마음거울 108' 앱 등 홍보 및 개선 시작

8개 앱 · 콘텐츠 사찰 홍보
SNS 등 활용해 콘텐츠 보급

조계종 포교원이 스마트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이하 포교앱)의 홍보 및 리뉴얼 작업을 시작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포교원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포교앱의 운영을 전면 검토하고 보완 작업 및 홍보 전개, 유튜브 등 영상플랫폼으로의 전환 등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2012년 '어린이 마음거울 108' 앱과 '청소년 마음거울 108' 앱을 시작으로 8개의 스마트폰 포교앱 및 콘텐츠를 제작, 보급해왔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어르신 등 연령별 마음거울 108앱은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108배라는 불교 특성이 드러나는 장점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매년 제작이 진행됐다. 하지만 전체 다운로드 수는 포교원이 당초 기대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원섭 포교원 전법팀장은 "제작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각 분야 앱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교 · 신행앱이 완성된 만큼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은 1차적으로 기존 제작 앱을 주요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다운로드를 홍보하고, 포교단체와 신도단체를 중심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무자 모바일 교육을 통해 홍보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리뉴얼한 앱 구동 모습.

이 밖에 앱에 담았던 콘텐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 및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시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앱 개선과 별개로 사장되는 콘텐츠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포교원이 2015년 제작해 보급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의 경우 2015년 약 3700만원, 2016년 약 800만원, 2017년 약 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불자들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현재 종교관련 카카오톡 이모티콘 입점이 금지돼 신규 제작이나 리뉴얼이 막힌 상태다.

송승옥 포교원 뉴미디어 담당은 "불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비롯해 미디어 전반에 대한 기반조사도 함께 추진해 장기적으로 미디어 포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며 "유튜브를 비롯해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포교 콘텐츠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⑥ 배불리 먹은 ~ 이룬다.: 氣血이 어느 한 부위로 이동할 때는 全身의 氣流通을 위해 서있는 것이 제일 좋고 다음은 무릎 꿇은 자세, 다음은 앉은 자세, 누운 상태가 氣流通에 제일 나쁘다. 그래서 옛 명의는 환자를 세워놓고 침 시술을 했으며 西歐에서 임신부는 앉은 자세로 출산한다.

어느 30代 남자가 소화불량과 두통, 불면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였다. 역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저녁식사 후에는 절대 소파에 앉지 말고 방에 기대지 말고 3시간만 앉아 있으면 병은 저절로 나을 것이요." 3개월 뒤 그가 말하기를, "당일부터 모든 증상이 호전하였습니다."소파에 앉는 것은 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소화가 안 되고 氣血이 응체되어 百病이 생긴다. 기대지 않고 앉아서 T.V를 보면 하복부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 氣血이 모이니 자연히 火降하여 잠이 오는 것이다.

⑦ 땀이 흐르는데 ~ 돋는다. : 역자는 20代까지 祖父와 유도사범에게서 땀이 그친 뒤에 목욕하라는 훈계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다.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땀 난 채 냉수샤워를 하고나서 寒熱, 身痛, 風疹을 누차 체험하였다.

⑧ 앉거나 누워있는 곳 ~ 해당되지는 않다. :

역자는 어느 날 仙道의 調息訣의 내용 중에서 창문을 닫고 수련하라는 한 구절을 읽는 순간, 本書의 本句節에 대해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가져왔던 의문에 대한 답을 한순간에 깨달았다.

역자는 한동안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즉, 청소년기에는 20대 이전보다 의식과 생활이 단조로웠는데 그때는 왜 언제나 여름밤에는 자주 꿈을 꾸고 겨울에는 꿈을 꾸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다. 해답은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잤기 때문이며 선풍기가 돌고 있는 중에 잠들었을 때는 예외 없이 언제나 뒤숭숭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요가와 仙道의 이론에 의하면, 호흡 수련의 목적은 감정과 정신을 조절하는 외에 氣를 섭취, 축적하여 체력증진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선풍기바람 등은 실내의 氣를 이동시켜 산란케 한다. 그리하여 실내에 있는 사람은 산란한 氣를 호흡하게 되니 체내의 氣도 저절로 산란되어 몸과 마음이 불안정해지므로 뒤숭숭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어떠한 식으로도 자주 自然風, 人工風을 맞는 사람은 단연코 장수할 수 없다. 自然風이라고 하더라도 바닷바람에는 수억 년 된 심해의 한냉한 水毒인 [illegible]風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변지역거주자의 평균수명이 내륙, 산간지역거주자보다 짧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로 이미 증명되었다.

○ 뇌호(腦戶) : 督脈의 要穴로 後髮際上2寸5分이다. 숨골, 호흡중추, [illegible]髓라고도 한다.

17 머리감기, 목욕과 얼굴 씻기. 沐浴洗面。

○ 書云, 頻沐者, 氣壅於腦, 滯於中, 令形瘦體重, 久而經絡不通暢。

자주 머리를 감는 자는 뇌에 기(氣)가 엉키고1) 중초(中焦)에 기(氣)가 응체되어서 몸이 마르고 무겁게 느끼며 오래되면 경락(經絡)이 잘 통하지 못하게 된다.

○ 書云, 飽食沐髮, 冷水洗頭, 飮水沐頭, 熱??洗頭, 冷水濯足, 皆令人頭風。

배불리 먹고서 머리를 감거나, ② 차가운 물로 머리를 씻거나, 끓였다 식힌 물로 머리를 씻거나, 뜨거운 쌀뜨물로 머리를 감거나,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등 ③의 모든 행위들은 두풍(頭風) ④을 생기게 한다.

○ 書云, 新沐髮, 勿令當風, 勿濕[illegible], 勿濕頭臥。令人頭風, 眩眼及生白屑, 髮禿而黑齒痛, 耳聾。

머리를 감고 나서 곧바로 바람을 쐬면 안 되고⑤ 마르지 않은 상태로 상투를 틀어도 안 되며 마르지 않은 상태로 누워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두풍(頭風)이 생겨 눈이 어지럽고 흰 비듬이 생기며 머리털이 빠지며 치아가 검게 변하며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

○ 書云, 女人月事來, 不可洗頭, 或因感疾, 終不可治。

여인은 월경 중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혹시 이로 인해 질병이 생기면 평생 고치지 못한다. ⑥

○ 書云, 沐浴漬水而臥, 積氣在小腹與陰, 成腎痺。

목욕할 때 물속에 몸을 담근 채 누워있으면 사기(邪氣)가 아랫배와 성기에 쌓여 이로 인해 신비(腎痺)를 이룬다. ⑦

○ 書云, 炊湯經宿, 洗體成癖, 洗面無光, 作齄[illegible]瘡。

끓인 물이 하룻밤이상 경과되었는데도 그 물로 몸을 씻으면 벽질(癖疾)⑧을 이루고 얼굴을 씻으면 얼굴에서 광택이 나지 않으면서 증왜창(齄[illegible]瘡)⑨이 생긴다.

○ 書云, 頻浴者, 血凝而氣散, 體雖澤而氣自損。故有癰疽之疾者, 氣不勝血, 神不勝形也。

자주 목욕하는 자는 혈액이 응체됨으로써 기(氣)가 흩어지니 몸은 윤택한 것 같으나 기(氣)는 저절로 훼손된 것이다. ⑩ 그러므로 옹저(癰疽)의 병이 있는 자는 기(氣)가 혈(血)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은 형체를 이기지 못한 소치(所致)이다.

○ 書云, 時病新愈, 冷水洗浴, 損心胞。

감기가 낫자마자 냉수로 목욕하면 심포(心胞)가 손상된다.

○ 書云, 因汗入水, 卽成骨痺。昔有名醫, 將入蜀, 見負薪者, 猛汗河浴。醫曰, 此人必死°隨而救之, 其人入店中, 取大蒜細切, 熱麵洗之, 食之, 汗出如雨。醫曰, 貧下人此知藥, 況於富貴乎。遂不入蜀。

땀이 났을 때 물에 들어가면 즉시 골비(骨痺)⑪)를 이룬다.

옛적에 한 명의(名醫)가 촉지(蜀地)에서 개업하기 위해 길을 걷다가 한 사내가 등에 땔나무를 지고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마주 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사내는 강물에 뛰어들어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명의가 놀래어 혼자 말하기를, "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의가 그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가까이 가니 그는 벌써 물으로 올라 주막에 들어간 후 마늘을 잘게 썰어 뜨거운 국수물에 씻어서 먹으며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었다. 명의가 감탄하여 말하기를, "빈천한 자가 저토록 약을 잘 아니 부귀한 자는 어떠하랴?" 이에 따라 명의는 촉지로 가지 않았다. ⑫

○ 云, 盛暑衝熱, 冷不洗手。尙令五臟乾枯, 況沐浴乎。

불볕더위로 인하여 몸 안에서 열이 치솟을 때 사람들은 흔히 찬물에 손이라도 씻는다. 그러나 이것은 5장(五臟)을 마르게 하는데 하물며 목욕이야? ⑬

○ 書云, 遠行觸熱逢河, 勿洗面, 生烏[illegible]。

먼길을 가다가 더위를 느꼈을 때 강을 만나도 얼굴을 씻지 말라.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

○ 閑覽云, 目疾切忌浴, 令人目盲。白彦良將歲, 常患赤目。道人曰, 但能不沐頭則不病。此彦良記之, 七十餘更無眼病。

《한람(閑覽)》에 이르기를, 눈에 병이 있을 때는 절대로 목욕하지 말라. 눈이 멀게 된다.⑭)

백언량(白彦良)이 새해를 앞두고 항상 눈이 빨갰었다. 도인(道人)이 말하기를, "머리만 감지 않는다면 병은 절로 나을 것이오." 백언량은 이를 기억하여 실천하니 70여세까지 살며 두 번 다시 눈병이 생기지 않았다.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고형렬 시인 등 16회 유심작품상 수상

시조부문 박방희 · 학술부문 송준영 · 특별상 천양희 선정


고형렬 시인


박방희 시조시인


송준영 주간


천양희 시인

각 부문에 1500만원 상금
오는 8월 11일 시상식 개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사상을 기리기 위한 유심작품상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제16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로 △시 부문 고형렬 시인 △시조 부문 박방희 시조시인 △학술 부문 송준영 〈시와 세계〉 주간 △특별상 부문 천양희 시인을 선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고형렬 시인은 〈어디서 사슴의 눈도 늙어가나〉로 수상했다. 수상작 〈어디서 사슴의 눈도 늙어가나〉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부드럽고 편안한 정서의 순정성과 그 이면에서 '생의 높이'를 감당하고자 하는 시인 특유의 정신성이 처연히 교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방희 시조시인의 수상작 〈삼릉 숲에서〉는 "평등한 진리(不二),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 도리(中道)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하면서도 서로 장애가 되는 일이 없다(相卽相融)는 불교적 세계관이 배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송준영 주간은 〈禪, 발가숭이 어록〉으로 수상했으며, 저서를 통해 "선시를 해독하고 비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6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1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며,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보살사상 근본도량' 금강선원 30주년

4월 8일 개포동 선원서 기념법회

'보살운동 근본도량'으로 개원한 서울 금강선원(선원장 혜거)이 4월 6일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금강선원은 1988년 4월 8일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20여 평의 사무실에서 시작했다. 현재 같은 건물 3개층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자곡동에 탄허기념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사세를 키워왔다. 여기에 탄허 스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탄허불교문화재단 및 전통불교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금강경강송대회와 만일수행결사회 등 보살사상 실천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문원전강의, 참선교육, 명상지도자 양성 등 신도 지성화와 교육에 앞장서 왔다.

이날 30주년 법회는 연혁보고에 이어 공로상 시상, 화엄경 석경불사 발원문 낭독, 가가합창단의 축가,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선원장 혜거 스님은 "금강선원 신도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신도로 불교계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는 생활이 즐거워지는 공부, 수행을 하도록 발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강선원 측은 향후 재단법인 추진 및 명상마을 건립, 전국단위의 걷기명상, 금강경강송대회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홍천군장애인福, 학생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학생들의 편견 없는 시야를 위해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나선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허종국)은 4월 11부터 27일까지 홍천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0개교를 방문해 장애인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복지관은 홍천군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을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박진형 기자